

치아 성형술

백승진 원장

입구정 백치과의원 / 서울치대 보철과 외래교수

Introduction

매스컴은 정보화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의학·미용 프로그램은 여성들에게 미에 대한 열병을 앓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잘생긴 외모가 사회적 신분관계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고 믿는 사회적 병폐도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성형수술은 마치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풍토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형수술 방법이 발달되어도 그 사람의 치아에 대한 인상은 바꿀 수 없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바르고 고운 치아가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을 치과의사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대중에게 알리는데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자신의 미소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열등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아 성형도 일반 성형 수술과 같이 거리낌 없이 느껴졌으면 한다. 그래서 교정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 또한 교정치료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업적인 이유로 빠른 시일내에 심미적인 개선을 원하는 경우 등에서 시행되는 치아 성형술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증례보고 |

치아가 앞으로 튀어나와 입술을 다물기 힘든 상황을 Empress관을 이용하여 성형한 증례

35세의 미혼 여성으로 자기 치아에 대한 열등감으로 중매를 통한 만남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전문 직 종사자로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자부심이 강한 여성이지만 남들이 자기 치아를 보면 자신감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입을 벌린 경우 상악 전치의 총생이 보이고 치아가 매우 크게 느껴지며 치아의 색이 지저분해 보인다. 이 경우 교정치료를 하여도 아마 Laminate나 All-ceramic관을 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교정치료 없이 바로 치아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증례이다. 어떤 치과의사는 1┘1을 발치하고 2┘2이 지대치인 FPD를 하여야만 치아를 안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1┘1이 발치됨으로 인해 Ridge가 줄어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수 있으며 4전치가 개개로 있는 것과 FPD로 연결된 것은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발치를 동반한 치아성형술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상악전치가 튀어나온 경우는 하악전치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때 하악전치의 절단부와 일부 순면을 Contouring 해주어야만 Clearance가 확보되며 하악운동시 예견되는 교합간섭을 줄일 수 있다. 근관치료를 먼저 시행할 때 설측으로 접근하게 되면 지대치 형성 후 남아있는 치질의 양이 너무 부족해 대부분의 경우 Post & Core를 해주어야 하는데 Parapost가 노출되는 부분은 Opaque resin으로 도포한 후 접착하고 Composite resin core를 주로 사용한다. 전치부용 Resin은 투명도가 좋아 Core형성 후 약간 어두운 회색빛을 띄나 구치부용 Resin을 사용하면 Opacity가 있어 Post색을 거의 차단할 수 있으며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좋다. Empress관 접착후 Resin core가 전혀 비쳐 보이지 않고 맑고 투명한 이미지를 주어 자연스럽다. 비교적 밝아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조화에서 튀어 보이지 않는다면 되도록 약간 밝은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치료 후 입술을 다무는데 매우 자연스러워 졌으며 말하거나 웃을때 더이상 손으로 입을 가리지 않고 매우 자신있게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하니 이런 것이 치아성형술의 마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그림 1-10



그림 1-11



그림 1-12



그림 1-13



그림 1-14



그림 1-15



그림 1-16

증례보고 II

치아가 마모되어 짧아진 치아를 In-ceram관을 이용하여 성형한 증례

상악 전치의 마모로 인한 심미적 손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 치아도 짧아지지만 보통 설측면 전반에 걸친 마모를 동반한다. 설측면의 마모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아마 Laminate를 이용한 치료가 고려될 수 있으나 드문 경우이며, 전방이나 측방운동시의 과도한 교합 접촉에 의한 Laminate의 탈락이나 파절을 자주 경험하였다. 이런 경우에 필자는 우선 파절이나 마모에 대한 저항성에 주안점을 두므로 Empress보다는 In-ceram을 선호한다. 근관치료시 순측 접근은 최소한의 치질 삭제가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Post & Core 형성이 필요없고 단지 Access opening을 Composite resin으로 메워주면 된다. 약간의 Gummy smile을 보통 나타내는데 Electrosurgery를 이용하여 약간의 치은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치아에 대한 콤플렉스로 시달려온 젊은 여대생에게 매우 귀중한 Smile을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었던 증례이다.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



그림 2-10

증례보고 III

치아크기의 부조화와 Diastema, 치아변색 등을 동반한 경우를 Empress관을 이용하여 성형한 증례

치아크기의 부조화는 Laminate를 이용하여 치료가 종료될 수 있으나 4전치수복 증례에서 인접면의 Separation을 동반한 경우는 자연스런 크기 조절이 어렵다. 특히 치아의 size를 크게 하기는 쉬어도 size를 줄이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또한 전반적인 기공과정 중에 색상, 형태, 크기조절 등을 전체적으로 조화있게 조절하는것은 All-ceramic을 제작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다.

위 증례에서는 중절치는 Empress로, 측절치는 Laminate로 할 수도 있겠으나 기공과정의 효율성과 색상조절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것 같다.

너무나도 완벽한 미에 대한 시기일까, 옥에는 꼭 티가 있어야 하는지 몰라도 새내기 스투어디스의 고민을 너무나도 잘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증례이다. 언제 외국학회에 참석하는 길에 한번쯤 마주친다면 좋을 것 같다.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